

사랑의열매

ISSUE **149**
2019 SEPTEMBER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함께합니다

황기순·박상민이 전하는 한가위 '사랑더하기'
“더하고 더해서
한가위 같기만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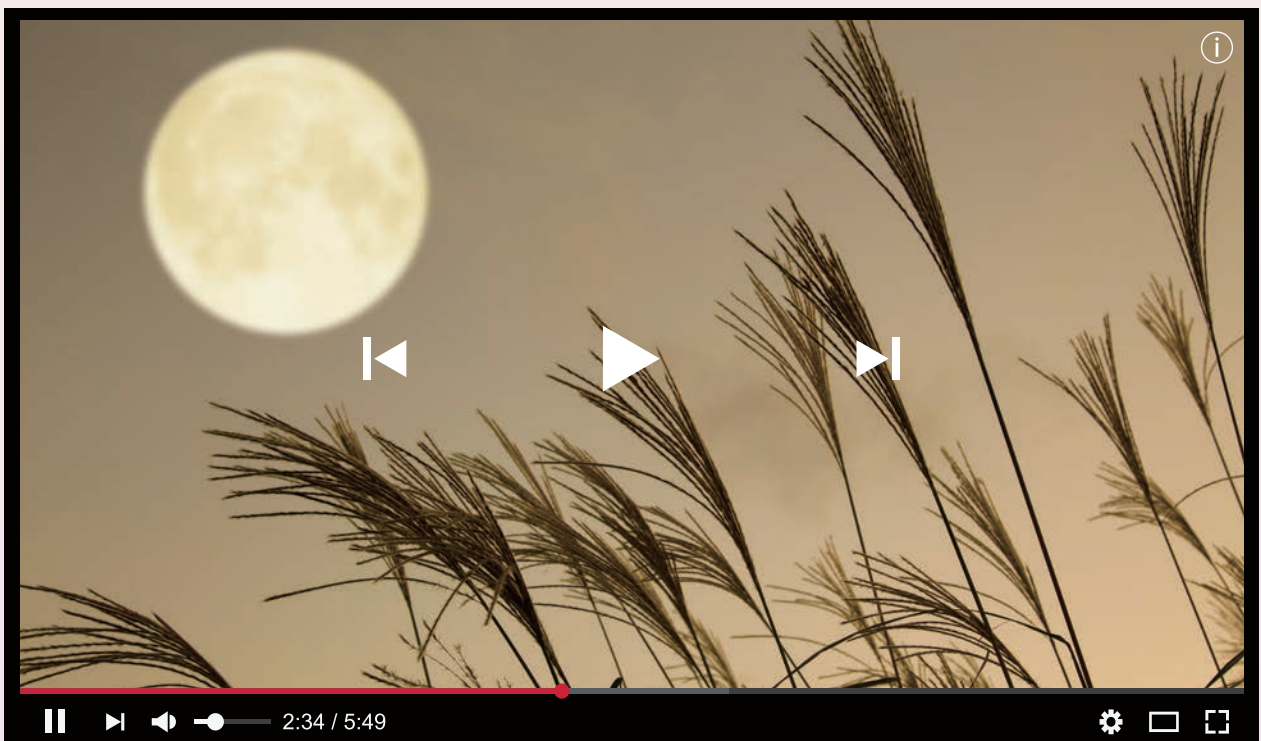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최근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을 잃고 남은 가족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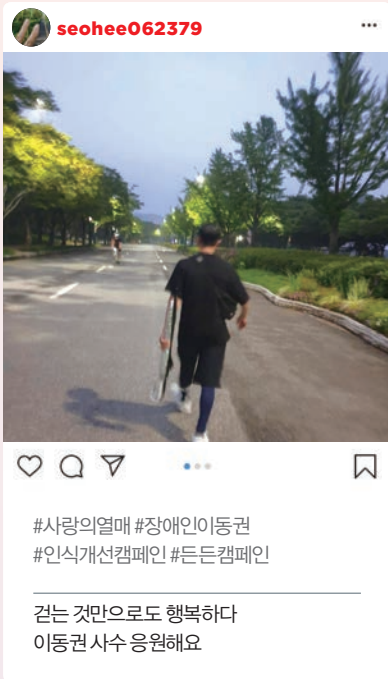
범죄가 없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범죄를 줄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랑의열매는 범죄 피해자를 돕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랑의열매 공식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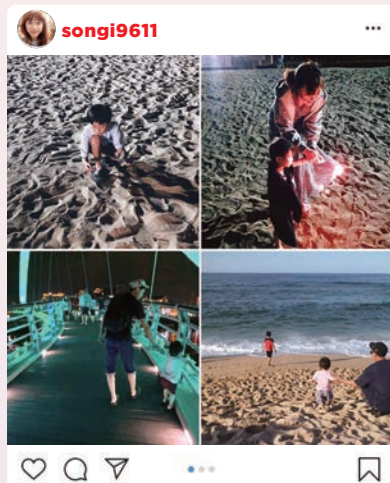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



***든든캠페인**

사랑의열매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장애인 이동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든든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00일간 진행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눔 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04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함께합니다

PART 1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심 사회

PART 2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

PART 3 실수를 반성하고, 건전한 희망을 품다

10 커버스토리

황기순·박상민이 전하는 한가위 '사랑더하기'

14 나누는 사람들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 차창규 이사장

18 나눔 현장

박수홍의 생애 첫 단독 공연 '빠송(PASONG)' 콘서트
수익금 전달식

20 장애인 이동권 인식 개선 캠페인

든든캠페인 100일간의 여정



사랑의열매

vol. 149 2019 / 09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9월 / 통권 14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북한강쭈꾸미 임경순 대표

26 착한기업

기부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서울마주협회

30 뱅큐 사랑의열매

"수전사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요"

32 착한시장

착한 사람들이 모인 '착한시장'
인천 신기문화관광시장

36 마음책방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당신,
유년기에 답이 있다?

38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불고기의 향과 맛에 취하는구나

40 힐링 타임

놓치면 아쉬운 즐거움의 향연
대한민국 국가 대표 가을 축제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

글이선희 사진 각수행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모두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함께합니다

최근 잔혹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범죄 발생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폭넓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범죄 피해자를 돕고, 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태고 있다.



PART
1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심 사회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은 발생 위험도가 높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에게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법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법률 지원 등으로 캄캄한 밤에 환한 불빛을 선사한다.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는 안심가로등 지원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안심가로등 지원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냈다. 취약 계층 거주 비율이 높거나 가로등 미설치 지역, 범죄 발생률 및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 안심가로등이 필요한 전국 24개 지역에 1,371기를 설치했다. 안심가로등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낮 시간에 충전한 전력으로 밤에 불을 밝혀 연간 약 3억 5,000만 원의 공공 전기료를 절감했다.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이상 밝지만, 자정이 되면 주변 동식물의 성장을 위해 밝기가 자동 조절되고, 절전 효과까지 있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디자인을 적용했다.



“안심가로등이 설치되고 도난범죄 발생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전남 영광군청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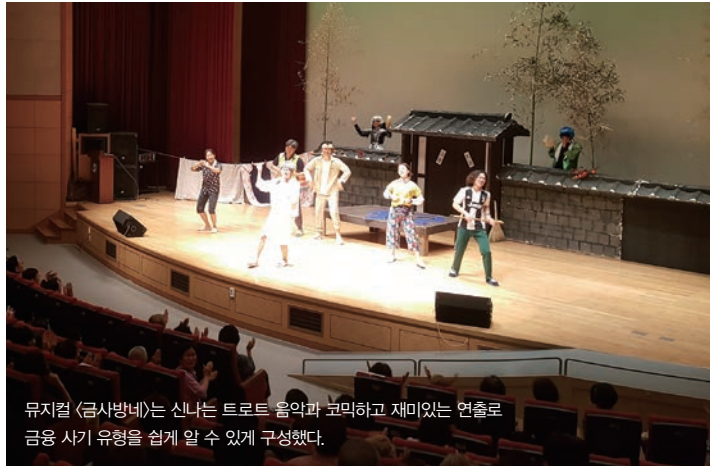
“안심가로등 설치 후 범죄율이 낮아졌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사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경북 문경시청 관계자



여의도 벚꽃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가족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확대 및 가정 문제 예방 사업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유료 법률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삼성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송 구조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무료로 소송 구조를 지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정 법률 상담실을 설치해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 상담, 비혼모 가정 캠프 및 워크숍,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석해 출장 법 교육과 가족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직원 교육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뮤지컬 <금사방네>는 신나는 트로트 음악과 코믹하고 재미있는 연출로 금융 사기 유형을 쉽게 알 수 있게 구성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금융 사기 예방 프로젝트

신한카드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금융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미처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금융 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보급했다. 책, 동영상, 교구 등으로 제작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금융 사기와 사례, 대처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 콘텐츠를 토대로 성인 발달장애인 8명을 대상으

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인터넷 뱅킹 활용법,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차이점 등 금융 기초부터 보이스피싱·대포통장·스미싱 등 금융 범죄 사례와 예방법, 대처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뮤지컬·연극 공연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허망하게 잃은 노인 피해자 사례가 종종 보도될 정도로 노인 대상 금융 사기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며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뮤지컬 <금사방네>를 3개 도시 1,000명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공연했다. 뮤지컬에서는 기관 사칭형, 취업 빙자형, 투자 유도형 세 가지 금융 사기 유형을 신나는 트로트 음악과 함께 재미있게 다뤘다. 공연에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만든 금융 사기 예방 동영상을 상영해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 기존 이론 교육에 비해 관객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뮤지컬 외에도 사랑의열매 지정 기탁을 통해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극 <네 놈 목소리>도 공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사전 제작한 금융 콘텐츠를 활용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PART
2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뿐 아니라 범죄 피해 유가족 역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모은 작은 정성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큰 위로가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기금 조성

지난 2016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은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나눔' 협약을 맺었다. 2018년부터는 착한가게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액 정기 기부자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북부청 산하 12개 경찰서 관내 기업인·자영업자 등이 참여해 현재 착한가게는 47곳이 되었다. 착한가게 기부금과 신한카드 포인트 모금 제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1년에 한 번 경기북부청 청문감사관실 주최로 심의회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된다.

진주시 아파트 사건 피해자 지원 성금 지급

지난 4월,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4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개월간 희생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893건, 8억 8,000여만 원이 모금되었다. 자연재해가 아닌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례적인 성금 모금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경남 사랑의열매와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7월 30일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원 성금을 지급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연계한 착한가게 기부자 단체 가입식 모습





사이버 성폭력 법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사이버 성폭력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범죄 피해 유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삼성에서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전남지부에서 진행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 사별 애도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범죄 피해자 유가족은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만약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 복귀에 큰 장애물이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 2차 사건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코바 전남지부에서는 사건 사고 피해자 유가족 90명과 소방관, 사건 담당 경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애도 상담 교육을 받은 피해 상담사가 피해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1박 2일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사업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방향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활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또 형사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역고소하는 등 사안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를 위해 전문 기관을 연계해 준다. 두 번째 방향은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활동가의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지원 활동가의 역량 강화 교육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 법 제도 문제 인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이버 성폭력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코바와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PART
3

실수를 반성하고, 건전한 희망을 품다

소년 범죄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 예술 활동으로 건전한 취미를 갖게 하고, 개성과 소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6호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하나 된 꿈

삼성에서 후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었다.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고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사는세상에서 진행하는 6호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부제: 하나 된 꿈, Dream Connected)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람청소년센터의 6호 보호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6호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내리는 10가지 처분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에 송치될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시설 생활을 통해 교정이 필요한 소년에게 내려진다.

크게 4개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학력, 검정고시, 어학 지원을 통해 중단된 학업을 연장하는 '아람 아카데미',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스탠딩 아카데미',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꿈과 끼를 지원하는 '드림 아카데미', 개인별 비행 예방 및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본 아카데미'로 나뉜다.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5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고, 바리스타 2급 자격을 취득하는 등 청소년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다. 프로그램을 통해 6호 보호처분 청소년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정서 순화를 도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6호 보호처분 청소년 참여소감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떠오르는 나쁜거나 건전하지 못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할 각오를 하게 되었다. 매 순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두 번 노력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치우친 자존감에 휩쓸리며 사는 것보다 과거의 내 자존감이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것 같아나 자신에게 나름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자존감 회복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OO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코칭과 모듬 체육 활동을 진행한다.



황기순·박상민이 전하는 한가위 '사랑더하기'

“더하고 더해서 한가위만 같기를 바랍니다!”

매년 사랑의열매와 함께 순회 모금 행사 '사랑더하기'를 이어온 개그맨 황기순과 가수 박상민이 한가위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이기도 한 황기순은 18년째, 박상민은 14년째 모금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더하고 더하면 더 커진다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그맨 황기순과 가수 박상민이 사랑의열매와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다. 고운 한복으로 차려 입고 포지 촬영을 하던 날은 공교롭게 비가 내렸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이루어진 촬영에 비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니 조금은 선선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이른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이었다. 포지 촬영 현장에는 열매톡톡 4기 대학생 서포터즈들도 함께했다. 북적이는 분위기가 정말 추석 명절 같기도 했다.

“지금까지 평생 한복을 세 번 입어봤어요. 아버님 칠순 잔치 때하고, 애들이랑 국악 프로 나갔을 때랑 그리고 오늘 사랑의열매 촬영에서요. 한복을 입어야 한다길래 조금 걱정했지만 사랑의열매에서 입으려면 입어야죠. 하지만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벗을 수도 없고… 다들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웃음)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 서포터즈들과 함께 촬영하니까 덜 어색하고 오히려 즐겁네요!”

포즈를 취하면서 웃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조금은 어색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들에게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던지며 환한 웃음을

유도하는 이는 황기순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웃음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천생 개그맨이구나 싶었다.

18년째 이어온 '사랑더하기' - 황기순

매년 이어온 '사랑더하기' 모금 행사는 황기순이 시작했다. 그는 2000년 3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를 종단하며 모금 활동을 했고 그 돈으로 휠체어 52대를 구입해

'사랑더하기' 미니 콘서트에 함께한 황기순과 박상민, 김연순 사무총장



“가족과 동료의 관심이 재기의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가족과 이웃, 동료가 되어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황기순

“기부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모금 활동, 처음 모금함을 열었을 때 ‘이건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 박상민

기부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랑더하기’ 모금 행사는 휠체어 종단, 사이클 종단 그리고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18년째 이어져왔다.

“처음 모금 운동을 한 후 모금함을 혼자 뜯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는 신문사 기자를 찾아갔더니 사랑의열매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열매와 인연이 시작됐죠. 나도 이제부터 좋은 일 하면서 살자고 다짐했지만, 저의 진심을 세상에 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마 소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쉽게 어떻게 해보려는 알뜰한 생각은 아예 버렸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18년이 흘렀네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곳곳하게 해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18년을 이어온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황기순은 여전히 몸을 낮추었다.

“처음으로 휠체어를 기증했는데, 기증받은 곳 중 광주 쪽에서 전달식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거절했죠. 좋은 일 한답시고 티 내면서 그러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광주까지 갔는데... 전달식장 강당에 휠체어 30대가 쪽 늘어선 광경을 보는 순간, 뭔가 빵 하고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의 감동과 충격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황기순은 주는 사랑에 자신이 받는 사랑까지 더해진 사랑을 알게 됐다.

액수를 떠나 감동이 엄청나요 - 박상민

황기순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박상민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황기순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합류해 14년 동안 ‘사랑더하기’를 이끌어왔다. 시작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돕겠다고 나선 사람도 14년째라니,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 절로 나왔다. 그래도 박상민은 자신은 얼마 안 됐다며 모든 공을 황기순에게 돌렸다.

“14년 전에 황기순 씨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모금할 때 전라도 광주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게 시작이었어요. 이 행사가 공교롭게도 가장 더운 8월에 있어요. 물 한 병까지도 내 돈으로 사 먹어가며 하는데, 어쩔 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돈 벌어서 기부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지요.(웃음) 그런데요, 모금함을 딱 개봉해서 10원짜리 동전부터 만 원짜리 지폐까지 쏟아져 나오잖아요, 액수를 떠나 그 감동이 정말 엄청나요.”

1 전국 각지에서 모은 모금함을 여는 순간
2 휠체어, 사이클을 타고 국토 대장정 모금 운동으로 시작한 ‘사랑더하기’



기부와 다른 모금의 감동을 느낀 박상민은 ‘아, 이걸 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14년 동안 이어온 박상민의 모금 활동엔 다양한 기억이 자리한다. 매년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 아이들이 모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과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박수 치는 착한 얼굴의 부모들… 모두 박상민이 어디에서든 모금함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 왜 돕느냐고 질문하고 싶었던 참이다.

“어떻게 소리 있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너무 짜릿해요. ‘박상민, 너 진짜 출세했구나.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과 기쁨도 주고 말이야.’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사랑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명절이다. 많은 사람이 따뜻함을 이야기할 때 인 만큼 어렵고 힘든 일도 더욱 도드라진다. 누구보다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황기순과 박상민에게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물었다.

“부모님이 평택시장 남의 가게 옆 모퉁이에서 채소 가게를 오래 하셨어요.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시장에 가면 혼자 울컥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날이 올 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다짐하면서요.”

박상민은 추석이 기쁜 사람도, 슬픈 사람도 다 지나가는 시간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황기순도 같은 진심을 전했다.

“내가 나를 포기한 순간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의열매 서포터즈와 함께 촬영한 황기순, 박상민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를 걱정해주는 동료들의 관심이 결국은 나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좋은 일이라도 품 나게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는 가족이고, 동료고, 이웃이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아빠가 가장 큰 꿈이자 목표라는 황기순은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더하고 더하는 사랑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민 또한 이 짜릿한 감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의열매>를 통해 모든 분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긴 시간 동안 ‘사랑더하기’를 이어온 만큼 그 누구보다 사랑 가득한 추석이 되길 기원한다면 서 말이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한가위만 같기를 바라면서. 🍎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를 위해 평생을 바치다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 차창규 이사장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마음 아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뼈아픈 말이 있다. 이 말은 현실이고, 그래서 더 뼈아프다. 평생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복지를 위해 투신해온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 차창규 이사장은 말한다. “이제 그런 말은 역사의 뒤편길로 보내자. 그래야 할 때다”라고.



아직 여름 피약별이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 한강 여의도 매점 2호점에서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 차창규 이사장을 만났다. 고령의 나이인데도 나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숨길 수 없는 당당한 인상이었다. 차창규 이사장은 수원 지역 독립 만세 운동 총지휘자이던 독립운동가 차희식 선생의 직계 손자다. 차희식 선생이 이끈 만세 운동은 전국에서 제일 치열해 일본 헌병들에게 악랄한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농민들까지 교회에 가두고 기름을 뿌려 태워 죽인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차희식 선생은 만세 운동 후 체포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9년 2개월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다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순국해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늘 이야기를 들었지요.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너의 할아버지는 우리 고장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러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라’고 말씀하

셨지요.”

독립운동이란 게 뭔지도 몰랐을 어린 나이 때부터 차창규 이사장은 훌륭하게 사신 할아버지의 무게를 몸으로 배워나갔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이란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차창규 이사장뿐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 나라를 돌보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했고, 가난했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렇기에 가난은 지속되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아픈 말도 여기서 기인한다.

“올해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요. 100주년이면 3대가 지난 거예요. 3대까지는 그래도 연금을 조금은 받아요. 하지만 4대부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오로지 조상에 대한 기억과 훈장뿐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 3대 후손들조차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자신들의 혜택이나 권리를 찾



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조상이 무언가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드높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법이 좀처럼 없다고. 그러다 보니 현실은 더욱 어렵기만 하다. 차창규 이사장은 이런 현실을 타파해보고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

“충각 때부터 도움을 주려고 온갖 일을 다 했죠. 학비가 없는 유가족이 있으면 학비 감면을 위해서, 취직이 힘들면 작은 일자리라든 연어보려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뛰어나도 미미한 도움에 그치고 말았어요.”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처음 한강공원 위탁 운영, 수익금은 유가족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

차창규 이사장이 광복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국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어 현장에 나섰으나,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고생하고 노력한 끝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법적인 배려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매점(여의도 매점 1, 2호) 운영권을 따냈다.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을 독립유공자 가족이 따

낸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해 생계를 해결하려고 복지사업조합을 만든 거예요. 이곳 한강 여의도 매점 두 군데 운영권을 따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갖은 곡절을 겪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창규 이사장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장들도 독립유공자 가족을 위한 배려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한강 여의도 매점 두 곳의 수익금 전액은 살길이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바로 위인 차상위 계층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연간 3억 원 규모로 생활비 보조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한다. 무엇보다 복지사업조합을 통해 직접 저소득층 유가족에 전달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한다.

태극기와 착한가게 현판이 나란히

지난달 14일에는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에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는 기념식도 있었다. 이날 전달한 현판은 한강 여의도 매점 1, 2호의 운영 수익금 중 매월 2,5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연간 3억 원 규모로 저소득 독립유공자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독립유공자가족유가족 복지사업조합 차창규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며 순국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대한노인회 원로회 정운태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한 ‘착한가게 인증패’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소외되거나 가난한 삶에 머무르지 않도록 서울 사랑의열매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를 위한 매점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단체 사진과 오래된 태극기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 이색적 풍광을 자아냈다.

“우리 매점에 오는 분들은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알고 나면 사진도 찍고 그러죠. 왜 이렇게 태극기 사진이 낡았냐고도 물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하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활동한 탓이라 말해주면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이곳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가는 공간이 되

기도 하죠.” 이곳 매점은 유공자나 유가족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일한다. 차창규 이사장도 특별한 외부 활동이 없으면 토요일엔 꼭 나와 가게를 살핀다. 오늘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뛰고 있는 차창규 이사장에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감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할아버지의 크신 뜻에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래된 태극기 사진과 빨간 열매가 반짝이는 착한가게 현판이 있는 곳! 한강 매점 여의도 1, 2호점으로 가보자. 뜨거운 애국정신이 가득 스며 있다. ❀



이보다 더 신나고 짜릿할 순 없다

박수홍의 생애 첫 단독 공연 ‘빠송(PASONG)’ 콘서트 수익금 전달식

선한 영향력의 클러버 박수홍이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열고, 가수로 공식 데뷔했다.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클럽을 콘셉트로 연출한 기부금 전달식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짜릿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흥겨운 기부금 전달식 현장의 열기를 전한다.





박수홍을 위해 즐거운 기부금 전달식을 준비한 사랑의열매 직원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6층 대강당에 한바탕 유쾌한 소동이 벌어졌다. 조용하고 엄숙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가득한 클럽의 모습에 가까웠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의 기부금 전달식 현장이었다. 오랫동안 가수를 꿈꾸며 활동해온 박수홍이 7월 7일 서울 마포구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드디어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연 것. 박수홍은 콘서트에 앞서 6월에 열린 소다수 나눔 캠페인 콘서트에 출연해 “첫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보았던 모든 클럽을 통틀어 오늘 이곳 사랑의열매 클럽이 가장 열정이 넘치고 짜릿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부금 전달식장 저만 처음 보는 거 아니지요?(웃음)” 기부금 전달식장에 들어선 박수홍은 큰 감동을 받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나 꿈꾸는 박수홍의 선한 영향력

데뷔한 이래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박수홍의 열정은 데뷔 20년 만의 생애 첫 가수 공식 데뷔 무대인 ‘빠송(PASONG)’ 콘서트로 이어졌다. 빠송(pasong)은 박수홍의 별칭으로 ‘열정’이란 뜻을 담고 있다. 박수홍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박수홍은 이날 콘서트에서 트로트와 디스코 등 노래와 춤, 퍼포먼스, 피아노 연주 등 1인 다역을 소화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이런 박수홍을 향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며 선행 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기부자라고 극찬했다.

“직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수홍 홍보대사께서는 이미 인기 개그맨으로, 출중한 MC로 이웃들에게 충분히 넘치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못다 이룬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콘서트를 열고,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모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감동을 줍니다.”

예종석 회장은 박수홍의 선한 영향력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받은 것 같아

2016년 12월 애장품 경매 수익금을 기부하며 홍보대사로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은 박수홍은 어머니 지인숙 여사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하고, 2017년에는 재능기부로 영상 광고를 촬영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인천 동구에서 연탄 기부와 봉사를 하고, 사랑의열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C로 진행 솜씨를 뽐냈으며, 토닥토닥 콘서트와 소다수 나눔 콘서트 등에 진행자와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이끔며 재능기부를 했다. 이만치 바쁜 홍보대사가 또 있을까. 박수홍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오늘 저는 수익금을 기부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신나는 클럽 같은 전달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 박수홍! 너 참 잘 살고 있어’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사람 눈물 나게 하는 클럽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감동은 제가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박수홍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하며 전달식장을 또 한 번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천성 개그맨이다. 흥겨운 전달식에 자리한 모든 사람이 박수홍을 향해 “수홍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친다. 선한 영향력을 내뿜는 그는 하고 싶은 걸 필히 다 해야 한다. 🍀

전례 없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박수홍의 콘서트 수익금 전달식



우리는 언제 '든' 어디 '든' 갈 수 있습니다

든든캠페인 100일간의 여정

출퇴근하거나 약속 장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에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비장애인은 이동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눈높이 아래로 시선을 낮추면 미처 몰랐던 불편한 세상이 있다. 사랑의열매는 눈높이 아래에 있는 그들의 세상을 만나기 위해 '든든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사로는 휠체어 장애인에겐 에베레스트산

휠체어 탑승 시설을 장착한 시외·고속버스 차량 0대, 저상버스를 이용해본 적 없는 장애인 74%, 여행을 실행에 옮기는 장애인 9.3%. 이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적 편견이 '장애'를 규정짓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랑의열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7월 28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인식 개선을 위한 '든든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선 장애라는 단어는 손상 입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상 불편 요소를 야기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영상,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등을 제작·발행하고 배포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연인원 조회 수 117만 7,803회, 좋아요 및 공감 1만 8,815개 등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SNS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함께 가고 싶어요' 이벤트다. 여행지 사진을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장애인이동권 #든든캠페인과 함께 그곳이 '어디든', '누구든' 함께 갈 수



장애인의 이동권 인식 개선을 위해 100일 동안 진행한 '든든캠페인'

있도록 응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다. 참여자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 요소를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다음으로 비장애인인 열매리포터가 서울 시내에서 수동 휠체어를 직접 체험하는 '50cm 아래에서 보낸 1시간' 영상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완만해 보여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경사로, 방지턱에도 휠체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등 비장애인에겐 사소한 것이 장애인에게 위험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왜 '환경'이 장애를 규정한다는 건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콘텐츠였다.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날까지

사랑의열매에서는 '든든캠페인' 이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후원하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전동 유닛

공유 사업인 '전동화 키트 세어링'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중·장거리 여행, 출장 등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전동화 키트를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수동 휠체어에 전동화 키트를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은 물론 항공기에도 반입이 가능해 해외여행 시 유용하다.

또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포항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 한동대학교, KT가 산학 협력해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매핑 애플리케이션 '휠리릭(Wheeliric)'을 개발했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입식 테이블 유무, 경사로 등 휠체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는 장소와 명칭 검색, 장소 후기 공유 기능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 외에도 사랑의열매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 장애인 차량, 이동 목욕 차량 등 특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든든캠페인'은 종료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랑의열매의 노력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누구나, 어디든,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사랑의 열매는 계속해서 힘을 보탬 예정이다. 🍀

1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직 공무원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 중인 신인교 씨가 열매리포터의 휠체어 체험을 도왔다.

2 수동 휠체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전동화 키트



KT 애플리케이션 휠리릭(Wheeliric)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신인교 씨와 함께 휠체어 체험을 한 열매 리포터의 생생 후기 중앙회 마케팅본부 온라인팀 서정애 담당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휠체어로 이동하니 1시간이나 걸렸어요. 체험을 하기 전 이런 부분이 힘들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막상 휠체어를 타니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체험을 마친 후에는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골목길, 식당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곳에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북한강쭈꾸미 임경순 대표

“고마움을 열 배로 갚겠다는 다짐, 10년 만에 지켰습니다”

어린 아들의 수술비 때문에 충남 사랑의열매 문을 두드린 한 아버지가 있었다.

당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억 원대 빚을 안고 있던 그는 사랑의열매에서 받은 지원금을 쥐고 언젠간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10년 뒤, 다시 사랑의열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약속을 지킨 북한강쭈꾸미 임경순 대표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버틴 시간들

충남 아산 신정호수 남단에 자리한 ‘북한강쭈꾸미’를 운영하는 임경순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특히 사랑의열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막내아들 청빈이가 세상에 나온 지 15일 남짓한 무렵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 숨소리가 이상하다며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부부에게 건넸다. 그렇잖아도 며칠 전 임경순 대표가 아내에게 아기 숨소리가 이상하지 않냐며 물어본 터였다. 보건소에서 곧장 달려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병 판정을 받았다. 심장과 폐의 동맥이 잘못 연결된 ‘대혈관전위’

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어린 아들은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총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 수술 중 심정지도 왔고, 수술 후 출혈이 심하다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 다음으로 예정된 2차 수술도 못 하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2차 수술을 진행했으나 아기 상태는 여전히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나쁜 일은 연이어 온다고 했던가. 그 무렵 충남 보령과 청양에서 하던 미용 재료 유통업 사업이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매출이 급감하며 위기를 맞았다.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 아이의 병원비와 수술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갔다. 아이를 보살피느라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 결국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주위에서 충남 사랑의열매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줬는데,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지원금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만 받는 건데 나는 그 돈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들과 같은 병을 앓던 환아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 부부는 많이 울었다. 당시 아들의 3차 수술 일정은 잡혀 있었으나 수술비가 모자랐다. 한 치 앞



임경순 대표가 운영하는 '북한강쭈꾸미'는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다.



도 가능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경제적으로 심하게 압박받던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충남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 있다는 따뜻한 느낌

임경순 대표는 2007년 충남 사랑의열매에서 긴급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따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구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흔히 ‘온정의 손길’이라고 하는데 받아보니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어요. 이 고마움을 열 배로 갚겠다고 말이지요.”

3차 수술 후 아들은 차츰 상태가 호전되는 게 보였다. 마지막 수술까지 마치고 무사히 퇴원을 했다.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네 차례나 받은 아기 청빈이는 이제 열세 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가슴에 큰 흉터가 있고 심한 운동은 못 하지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2007년에 수억 원대 빚이 있었어요. 절망에 빠지다 보니 솔직히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었죠. 사랑의열매에서 받은 지원금은 제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어요. 도움을 받았으니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죽을 각오로 일했어요.”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충남 아산에 북한강쭈꾸미를 열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몸이 부서져라 일에만 매진했다. 가게를 운영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비로소 뒤를 돌아볼 여력이 생겼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임 대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2012년 무기명으로 지역사회에 5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해 아산 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정기 후원하는 등 점차 범위를 넓히며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지원금을 받은 지 꼭 10년 만인 2017년에 충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진작 가입하고 싶었죠. 아너는 한 번에 1억 원을 완납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언젠가 가입하는 그날을 위해 돈을 모으



고 있었죠. 우연히 약정 납부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가입했어요. 식당이 잘된다고 해도 큰돈을 기부한다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10여 년 전 지원금을 받고 열 배로 갚겠다는 나 자신과의 다짐을 지킬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아요.”

병원비 걱정 없는 아빠가 되는 게 꿈

막내아들의 가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흉터도 같이 커졌다. 청빈이는 자신의 몸에 남은 흉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해 열 살 무렵부터는 래시가드가 없으면 수영장에 가지 않았다. 흉터를 없애는 수술도 있지만 임대표는 다시는 아이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다고, ‘수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털리가 난다고 했다.

“매년 버킷리스트를 10개씩 적는데요, 1번은 항상 똑같아요. ‘병원비 걱정 안 하기’예요. 제가 아들만 돌인데 지금도 아들들에게 ‘공부 잘해라’라는 소리 안 해요.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무조건 건강이 우선이에요.”

언젠가 임대표는 큰아들과 함께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생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어선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 등짐을 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건설 현장 노동자, 벵타이를 매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 등 학교 밖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무슨 일을 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네 꿈의 크기 또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다.

“나눔 교육도 비슷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아빠가 둘 다 해보니 도움을 주는 사람일 때 좀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임대표는 기회 될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주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눌수록 따뜻하게 바뀌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목격했을 테니 생생한 나눔 교육인 셈이다. 더욱이 임대표는 지역 내 취약 계층에 꾸준히 후원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KBS,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한



임경순 대표는 2015년 착한가게에, 2017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도움을 받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모두가 같을 거예요. 받은 만큼 사회에 나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나눔을 계속할 거예요. 나눔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지 줄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임대표에게 사랑의열매는 어떤 존재인지 슬쩍 물어봤다. “가장 따뜻한 단체라고 생각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모금 단체에도 나눔을 실천해봤지만,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마 사랑의열매가 이런 제 생각과 잘 통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의 지난날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시간은 아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받은 도움의 열 배를 갚겠다는 다짐은 아마도 그 꿈과 목표 중 하나였으리라. 처음 약속한 열 배는 진작 갚았다. 그럼에도 임경순 대표는 멈추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가 베푼 나눔이 훗날 우리 사회에 어떤 자산으로 돌아올지 기대된다. 🍀

기부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서울마주협회

“경주마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적을 만듭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경마장을 달리는 경주마의 주인인 마주(馬主)들이 그 주인공이다. 대한민국 최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서울마주협회 회원들은 애마(愛馬)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특별한 나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

1993년 개인 마주제 시행과 함께 창립한 서울마주협회는 창립 초기부터 협회의 4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사회 공헌'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사회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09년 경마 홍보 혁신 시대를 천명하며 대대적인 홍보 사업에 나선 서울마주협회는 사랑의열매와 파트너십을 통해 마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말(馬)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애마와 함께하는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와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며 수많은 기부 천사 경주마를 탄생시켰다. 경주마의 이름으로 우승 상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마주들만의 독특한 기부 문화로, 지난 10년 동안 100여 명의 마주가 참여했다. 이 전통은 한 마리의 경주마에서 시작했다. 이수홍 마주의 대표마이던 '백광'은 2006년 대상경주 3연속 우승이라는 신화를 세우며 명성을 떨쳤지만, 인대염이란 치명적인 다리 질병으로 안락사 위기까지 가는 불운을 겪었다. 자식 같은 백광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수홍 마주는 국내 최초 줄기세포 치료까지 시도하며 재활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백광은 결국 2009년 대통령배 대상경주 준우승을 거두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수홍 마주는 "백광이 부상과 질병을 이겨내고 재활에 성공했듯이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대통령배 상금 중 4,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그는 백광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백광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불굴의 경주마 백광은 국내 최초 동물명의 기부 제호로 등

- 1 기부 천사 경주마 '지금이순간'이 동물 최초로 사랑의열매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 2 경주마 기부왕 '당대불패'와 정영식 마주는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들의 의복과 운동 장비,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으로' 캠페인을 선포하는 등 장애인 후원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록되었다. 백광의 훈훈한 나눔 스토리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말을 통한 새로운 나눔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애마 기부 역사는 경주마 기부왕 '당대불패'로 이어졌다. 당대불패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마 대회인 대통령배 3연패를 기록하며 역대 최강마로 이름을 떨친 경주마다. 경주마 시절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 이상을 불우 이웃 돕기에 쾌척하며 '경주마 기부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동물명의 기부 제2호로 등록된 당대불패는 매년 겨울 산타 모자를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달렸고, 핸드사이클·철인3종·수영·컬링 등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의족과 운동 장비,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 당대불패와 정영식 마주의 활동은 마주의 기부 문화와 전통을 꽃피게 할 토대가 되어주었다. 동물명의 기부 제3호는 최성룡 마주의 '지금이순간'이다. 주목받는 혈통은 아니지만 끈기와 강한 근성으로 탁월한 경주 능력을 발휘한 지금이순간은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거듭나듯 여러 경마 대회를 석권하며 2년 연속 한국 연도대표마에 올랐다. 2013년 은퇴를 앞두고 우승 상금 중 5,000만 원을 시각장애 음악 영재들을 위해 기부한 지금이순간은 동물명의 기부 제3호로 등록되며, 경주마 최초로 사랑의열매 목걸이를 목에 걸어 더욱 화제를 모았다.

특수학교를 세운 기부 천사 경주마들

2017년 9월, 강북구 미아동에 국내 최초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서울효정학교'가 개교했다. 2~7세의 시각장애 아동이 꿈을 키워나가는 서울효정학교를 건립하는 데 후원한 명단에는 국내 내로라하는 경주마의 이름이 즐비하다. 유명 배우인 길우용 씨의 애마 '강호대세'를 비롯해 '백광', '당대불패', '지금이순간', '마이티짐', '최강실러', '클린업조이' 등 한국 최강 명마들이다. 법인 마주 카길애그리퓨리나와 랫츠

런재단도 여러 기업이 자금을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매칭 펀드로 학교 건립 후원에 동참했다. 학교 측에서는 마주들의 기부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서울마जू협회 후원 현판을 달고 각 교실을 기부 마주의 경주마 이름으로 명명했다. 각 교실과 복도의 인테리어도 말을 테마로 꾸몄다. 서울마जू협회 임직원들도 개교 전 경주마 캐릭터를 담은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를 하며 동행의 의미를 더했다.

경주마 명의의 기부는 서울효정학교에서 성장하게 될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그 자체로 희망 메시지가 된다. 당대불패반, 백광반 등으로 불리는 교실의 스토리월에는 장애와 역경을 딛고 우승을 차지한 경주마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어린이 동화로도 출간돼 화제를 모은 '위대한 꿀피마 차밍걸'의 이름이 붙은 옥상 운동장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인기다. 경주마들의 스토리는 어린 친구들에게 더없이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고난을 딛고 일어난 경주마 스토리가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효정학교 학생들에게 말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닮고 싶은 롤모델로 꼽힐 정도다.

장애인 국가 대표 선수를 위한 '호프, 그레이트 챌린지' 프로젝트

2019년, 서울마जू협회는 새로운 나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제 27회 서울마जू협회장배 대상경주가 열린 지난 3월 17일 신규 사회 공헌 사업 '호프, 그레이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한 것이다. '편견을 넘어 희망과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마जू협회는 선수들의 훈련 활동과 의족 및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나갈 예정이



말을 테마로 꾸며진 '서울효정학교' 전경



1 서울마주협회는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 10년을 기념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2 장애인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는 '호프, 그레이트 챌린지' 프로젝트 선포식 모습 3 기부천사 경주마 '지금이순간'이 후원한 시각장애 음악 영재들 4 동물명의 기부 4호 '강호대세'와 배우 길용우 마주 5 동물명의 기부 문화의 시초가 된 '백광'과 이수홍 마주



2



3



4



5

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마주협회는 올해 사회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했고, 3명의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게 의족 지원금 3,500만 원(휠체어 농구 김동현 선수 1,000만 원, 아이스슬레지하키 최혁준 선수 1,000만 원, 탁구 김형권 선수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마주협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고, 선수들의 도전 의식과 열정을 스포츠로서 경마 이미지와 결합해 말을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10년간의 동행 확인한 '나눔리더스클럽'

지난 10년간 사랑의열매와 함께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서울마주협회는 지난해 10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으로, 향우회·동호회·동아리·팬클럽 등 다양한 단체가 일시, 또는 약정(3년)을 통해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부 클럽을 말한다. 서울마주협회는 가입식에서 5,000만 원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서울마주협회 강석대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마주협회와 사랑의열매가 나눔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우리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주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나눔 파트너십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두 단체는 상호 나눔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크고 따뜻한 나눔을 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함께한 100여 마리의 기부 천사 경주마의 이름은 한국 경마의 위대한 기록이 되었고, 서울마주협회의 다양한 기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사가 되었다. 경주마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애마의 이름으로 기부를 행한다는 것, 이는 말과 마주의 교감과 생명에 대한 경외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기부 문화인 것이다. 말과 함께 하는 서울마주협회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나눔과꿈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수전사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탈노숙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 자립 지원 전문 기관이다. 이들은 탈노숙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랑의열매 나눔과꿈 지원 사업으로 ‘수전사 전문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주)수전사 우드스터프의 참가로 노숙인 교육생들에게 제대로 된 전문기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

탈노숙의 핵심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단순 일용직을 넘어 전문 기술을 갖춰 그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노숙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의 '수전사 전문가 교육 사업'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취업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전문가로서의 자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실적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적은 수일지라도 근본적인 탈노숙과 수준 높은 자립으로 노숙인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일용직 노숙인에서 수전사 전문가가 되다

'수전사'는 수압전사 또는 물전사라고도 하는데, 굴곡이 있는 물건에 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물 위에 무늬가 인쇄된 특수 필름을 띄

(주)수전사 우드스터프의 문성호 대표가 일대일 교육으로 기술을 직접 전수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병행해 안정적인 실습이 가능했다.

우고 제품을 담갔다 빼 그 무늬를 표면에 그대로 입히는 방식이다. 수중 염색 기술은 초보자도 반복 훈련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고, 육체적 노동 부담도 크지 않아 노숙인의 교육에도 적합하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로 시장 경쟁력이 높고, 독창적 아이템을 좋아하는 사람의 수요가 늘면서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정경수 사회복지사는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업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숙인에게 연결되는 일자리는 단순 일용직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노숙인까지 구인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적은 보수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 노숙인의 건강 악화, 낮은 교육 수준,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근로 유지와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전사 사업은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결과다. 과거부터 노숙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의 결과로 서울시에서만 노숙인 잡지, 노숙인 카페, 노숙인 세차단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런 시장 진입형 사업이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출을 내야 한다. 그래야 참여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자립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활 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 분명해야 하고, 참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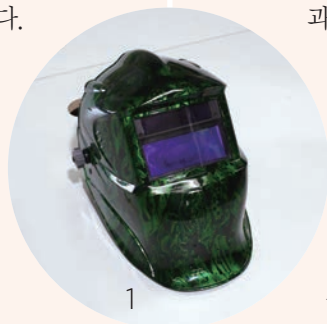


휴대폰, 오디오, 헬멧 등 복잡하고 굴곡 있는 3차원 물체에도 염색할 수 있는 것이 수증 염색의 최대 장점이다.

고자 하는 노숙인에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전사 사업'은 노숙인에게 확신과 비전을 줄 수 있었다. 이 사업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전사 전문 업체 (주)수전사 우드스터프와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약 과정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다. 어떤 연줄도 없이 업계 최고의 기업을 찾아가 노숙인의 자립을 부탁했고, (주)수전사 우드스터프 문성호 대표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내실과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메마른 땅에 장대비 같은 소식이었다. 여기에 나눔과꿈 사업 지원으로 스프레이건, 수조, 도색 장비, 샌딩기 같은 수전사 실습에 사용하는 필수 장비를 갖추 수 있었다. 작업장은 교육 이후에도 수전사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는 공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정경수 사회복지사는 “자립한 노숙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적응·융화하지 못한 노숙인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



1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사 교육 프로젝트는 노숙인이 단순히 생계 소득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일반인과 달리 노숙인은 자립 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인식이나 자활의 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교육 외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후반기 사업은 수혜자이던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체감할 것이다. 수전사 교육 사업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 기술자가 되는데, 교육 기간을

마친 교육생과 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연결해 수전사 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연말에는 수전사 기술로 멋지게 염색한 재생 자전거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선물할 계획도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체험의 즐거움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쁨을 주고, 수전사 전문가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이를 후원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숙인 스스로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는 노숙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



INTERVIEW

“전문 기술로 일자리와 자신감 둘 다 잡아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정경수 사회복지사



수전사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 노숙인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설거지 등 내일이 없는 단순노동이 많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노숙자 일자리 프로그램인 두바퀴 희망자전거 협동조합(폐자전거 수익 사업) 진행 중 도색 작업을 하면서 수전사라는 전문 직종을 알게 되었다. 시장조사를 한 후 전망이 좋다고 판단해 선택하게 되었다.

기존 업체와의 협약으로 얻은 장점은? 무엇보다 좋은 건 현장의 상황과 주문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거다. 교육만 하면 체감을 할 수 없는데, 교육 중 호수에 납품할 새소리 수집기 1만 개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작업이 수익과 연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웠던 점은?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 당장에 주어지는 것에 집중한다.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몇 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수전사 교육생을 뽑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어서 어려웠다. 교육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전문 기술로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밖에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호응이 높았고, 이를 통해 노숙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숙인은 편견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는데…. 노숙인은 후원사나 사업 파트너를 구할 때도 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노숙인이 된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부터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노숙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력하는데도 벗어나기 힘든 구조도 있다. 노숙인 수전사 교육 사업이 성공해 모조록 노숙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자신의 보호 마스크에 수증 염색 기술을 적용해 첫 작품을 만들었다.

2 나눔과꿈 지원 사업으로 수증 염색의 기본이 되는 작업장을 갖출 수 있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착한시장'

인천 신기문화관광시장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 셋

착한가정, 착한가게는 들어봤어도 착한시장은 생소한 사람이 많을 듯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한시장은 많지 않다. 지난 6월 상인들이 좋은 일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은 전통시장이 나타났다. 인천 신기문화관광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하나, 인천 최초의 나눔을 전파하는 착한시장

지난 6월 11일 신기문화관광시장(이하 신기시장)에서 '신기문화관광시장,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시장 선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허종식 정무부시장,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장, 조경배 남부종합시장 상인회장, 착한가게 사장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2013년 인천차이나타운 착한가게 거리, 2018년 선학동 착한가게 거리 지정 이후 1년 만이며 인천시 전통시장으로는 처음 탄생한 '착한시장'이다. 착한시장은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모여 있는 시장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신기시장, 남부중

합시장 등에 있는 가게 31곳이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착한시장을 조성하는 발판이 되었다. 김종린 회장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해왔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의 틀을 마련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착한시장 선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역시 신기시장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죠"라며 소감을 밝혔다. 신기시장에는 인천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것이 많다. 그러니 인천 내 전통시장 최초로 착한시장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주변 반응이 많다는 후문이다.

둘, 볼거리가 많아 재미있다!

신기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해외 홍보 마케팅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이 가볼 만한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인천 유일의 지역 선도형 시장이다. 앞서 2013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는 등 인천 내 대표적인 재래시장 성공 모델로 꼽힌다. 최근에는 시장을 찾는 인천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기시장 공영주차장에는 인천 야구의 역사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야구박물관이 있다. 연도별로 담은 인천 야구 100년사, 명예의 전당, SK 와이번스 선수들의 핸드 프린팅과 유니폼 등이 있는 SK 와이번스 존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신기시장에선 조선시대 상평통보를 본떠 만든 '신기통보'를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을 보는 재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구릿빛 엽전 자체가 한국 전통 기념품이기도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시장 한편에 목공 체험방도 운영하고 있어 평소 목공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셋, 이보다 깨끗하고 편리할 수 없다!

신기시장은 상인들 차원에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2013년에는 수도권 도심형 시장 중 가장 큰 200대 규모 주차장을 지었다. 이 덕분에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결 편리해졌다. 또 국내 전통시장 최초로 포인트카드를 도입했으며, 시장



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무인 화재 탐지기, 자동 경보기, 자동 개폐 장치 등 시설을 갖췄으며, 2016년부터는 종합 환경 위생 기업 세스코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달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자체 위생 교육과 물청소, 자체 방역 등 위생 개선을 위해 상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장을 방문할수록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퍼지는 '착한시장' 신기시장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겨보자. ♣

1 지난 6월 11일 신기시장 앞에서 착한시장 선포식을 했다. 2 신기시장 내 착한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3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양한 신기시장 4 매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기시장에서 나눔을 전파하는 착한가게 31곳 (가나다순)

고려왕족발, 광명홍두깨손칼국수, 기분좋은날, 꿀떡, 낙원떡집, 덕성식당, 마포주먹고기, 민물장어, 삼성상회, 설면옥, 신기수산, 신기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신기촌민속떡집, 신용사, 에덴철물, 율가네해물야구, 이모네부침, 자수정사우나, 정통 신포 닭강정, 종로떡집, 중앙축산, 진미건어물, 찬수네방앗간, 청성골 화로구이, 청해수산, 풍성해물탕, 한빛나노의로기, 할매부침, 할매부침2, 황해수산, 흥재축산(주)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당신, 유년기에 답이 있다?

-〈천 개의 공감〉(김형경 지음, 사람풍경)



20대 직장인 고은 씨(가명), 주말 오전 책을 사러 대형 서점에 갔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주말의 여유를 즐기는 사이 신간 한 권에 눈길이 갔다. ‘맞아, 우리 언니가 읽고 싶다고 했지? 요즘 일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사주면 좋아하겠지.’ 양장본이라 값도 만만찮은 책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나 요즘 바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래도 샀으니까 받을게.” 언니의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 마음. 여유가 없나 보다 생각하거나 “홍, 알았어” 하고 대꾸할 수도 있었건만 적당히 전화를 끊었다. 그러곤 잠자리에 들어서도 가시지 않는 서운함에 자꾸 몸을 뒤척였다.

내게 조금만 친절하지 않아도 나쁜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되살려 살아갈 에너지를 얻곤 한다. 그렇기에 타인과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다. 다만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상처받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소설가 김형경은 유명한 심리 치유 에세이 <천 개의 공감>에서 먼 어린 시절로 연약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김형경의 분석에 따르면 고은 씨는 언니를 위해 책을 산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고? 언니를 위해 책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책을 사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랑, 인정, 지지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책을 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빠서 책을 못 읽는다는 언니의 말 한마디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기대한 인정과 지지가 돌아오지 않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정과 지지를 기대하며 잘하려 애쓰는 사람에겐 대부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가 있다. 그것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그 불안감은 아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기가 배고플 때 울어

대는 마음엔 허기만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방이 떠나가라 울며 불안감에 대적하는 공격성은 엄마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완화되지만, 엄마가 미처 받아주지 못한 공격성과 해소해주지 못한 불안감은 나이를 먹어가며 '박해불안'으로 자리 잡는다.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지 않아도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고, 작은 거절에도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내상을 입곤 한다. 내면의 불안한 아기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대용을 찾으려 하며 과도한 온정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패턴이 계속되면 약속받은 적 없는 사랑을 기대하고, 그런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간접적 행위(선물 등)로 표현하며, 상대방이 인정과 지지를 주지 않으면 냉정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사랑을 나에게, 나에게 지금 베풀어라

김형경은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그중 두 가지에 눈길이 간다. 우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내

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로 바뀌서 생각하자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인식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된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마음 열고 받아들여 자신을 살찌우는 계기로 삼지만, 자아가 약한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가 문제다’, ‘○○가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작 ○○는 까맣게 잊은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 언제나 내 마음 안에 해답과 키가 있다는 김형경의 애정 어린 충고가 살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기대하는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이다. 언니를 위해 책을 살 것이 아니라, 주말의 여유를 흡수 누리며 고은 씨가 읽고 싶은 책을 정성껏 골라 자신에게 선물해서 행복감과 활기를 느꼈다면 좋았을 것이다. 뿌듯한 인정, 든든한 지지, 편안한 사랑, 짝 찬 행복, 참신한 즐거움.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역량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모두 들어 있다.

설령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해도 이제 나에게서는 어엿한 성인인 내가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미국 격언에 ‘서른 살이 넘으면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충만감을 선사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유년기의 질긴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인으로 개성 있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것이다. ♣



꿈꾸는 백설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유쾌한 칼럼니스트.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일간지와 관공서 등에서 일했다.

정신우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불고기의 향과 맛에 취하는구나

‘설후야연’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8첩병’ 중 하나다. 그림 내용은 단출하고 맛있다. 달 밝은 밤, 하얀 눈 위에서 즐기는 번철구이 맛이구나! 눈이 수북이 쌓인 달밤에 돛자리 깔고, 호족반(虎足盤: 호랑이 다리 모양의 소반) 위에 올린 청자에 담긴 술과 갓 구워낸 소고기가 먹음직하다. 선비와 기생이 한데 모여 앉아 운치를 나누니 분위기에 취하고, 고기 굽는 냄새에 녹는다.

불고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규합총서(閏閣叢書)〉에 설하떡(雪下覓)이란 이름으로 조리법이 나와 있다. “눈 오는 날 찾는다는 말이다. 등심살을 넓고 길게 저며 전골 고기보다 훨씬 두껍게 썬다. 칼로 자근자근 두드려 잔금을 내어 꽃이에 꿰어 기름장에 버무린다. 숯불을 세게 피워 위에 재를 얇게 덮고 굽는다. 고기가 살짝 익으면 냉수에 담가 다시 굽기를 세 번 반복한 후 기름장, 파, 생강 다진 것과 후추만 발라 다시 구워야 연하다.” 당시 고기는 생고기를 구워 소금과 장을 곁들여 먹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고기를 즐긴 것은 고려 말 몽골군의 침입 이후로 본다. 농경사회이던 당시 소는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고기는 제사용으로 주로 이용했다. 이후 발전한 음식은 조선 시대의 너비 아니다. “연한 소고기는 얇게 저미고, 잔칼질로 자근자근 연하게 하여 갖은양념에 재웠다가 굽는다”고 <시의전서(是議全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고기 요리가 바로 불고기다.

갖은양념의 간장 양념과 소고기 부위의 비율, 조리 방식에 따라 불고기는 제각각 향토색을 지닌 음식이 되었다.

오늘날의 불고기는 요릿집의 메뉴에 기인한다. 전쟁 이후 피난 온 이주민에 의해 현재의 불고기 역사가 자리했다. 그 배경에는 설탕과 맛술, 공장식 간장, 조미

료 등등 외식업 성장세의 기반이 된 식품산업의 보급과 발전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서 차츰 살아가기 시작한 여러 음식이 다시 서울로 입성했다. 당시 부의 상징이자 가장 각광받던 외식 메뉴 중 하나가 불고기와 냉면이다. 1939년 종로에 개점한 ‘한일관’의 명성은 유명했다. 대통령의 맛집으로 불리며 한일관 요리사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에서는 1951년에 문을 연 ‘사리원면옥’이 유명한데, 고향이 사리원인 신헌민 김봉득 일가에서 처음 불고기를 팔기 시작했다. 1905년 평양에서 시작한 ‘안면옥’은 1953년 부산에서 새롭게 문을 열어 현재는 대구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역사를 이어 맛을 전한 냉면과 불고기의 전통은 오늘날 ‘우래옥’, ‘봉피양’에 이어져 추억의 맛을 되새기는 이북식 불고기를 찾는 손님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대 불고기, 제대로 먹어보기

현재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불고기는 서울식, 언양식, 광양식 불고기라고 할 수 있다. 입맛과 취향대로 먹을 수 있지만 조리법이 달라 같은 불고기라고 해도 개성 있는 맛을 내기 때문에 식성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명 국물 불고기로 불리는 서울식 불고기는 화로에 불고기 전용 동판을 얹고 고기와 육수, 채소를 곁들여 국물과 고기를 함께 즐기는 것으로, 밥과 면을 맛이 뵈 불고기 국물에 폭 담가 촉촉하게 먹는 것이 맛있다. 최근엔 가스

불 전용 불판이 등장하긴 했으나 화로에 참숯 넣고 자글 자글 불 향을 입혀가며 육즙이 손실되지 않도록 육수에 폭 적셔 먹는 것이야말로 이 고급스러운 불고기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바삭 불고기로 불리는 언양식 불고기는 소고기를 얇게 썬 후 양념해 석쇠에 굽는다. 치마살과 우둔살을 주로 사용하며 양념한 고기를 석쇠 위에 펼치고 센 불에서 재빨리 구워내 육즙은 촉촉하고, 불 향은 담백하며, 고슬고슬한 고기는 씹을수록 특유의 향이 올라온다, 쌈 채소를 곁들이면 건강해지는 기분마저 든다.

끝으로 즉석 불고기라 불리는 광양식 불고기는 필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고기를 얇게 저민 후 먹기 직전에 습습한 양념에 버무린 후 숯불에 굽는다. 주물럭 또한 울고 갈 맛이다. 물론 어머니가 해주시는 불고기도 맛 좋다. 하지만 우리 음식 중 상당 부분은 원육, 화력, 양념법 그중 하나만 빠뜨려도 맛의 부족함이 두드러진다. 적어도 제대로 된 불고기를 맛보고 싶다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다. ♡



정신우 셰프는 국내 1호 남성 푸드 스타일리스트, 오너 셰프 레스토랑 운영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현재 플레이트 키친 스튜디오의 대표로 요리 강사와 멘토로 활약 중이다. 2014년 흥선암을 선고받았으나 환자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 요리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다. 최근 저서로는 먹방 에세이 <먹으면서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 <365 샐러드> 등이 있다.

농치면 아쉬운 즐거움의 향연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을 축제

수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도 국가에서 선정한 축제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995년부터 지역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발해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지원해오고 있다. 전문가와 소비자 등 200여 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육성 축제,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등 등급을 나눠 2019년 문화관광축제 총 41개를 선정했다. 이 중 가을에 열리는 축제를 소개한다.

PART 1

졸업장 받은 명예로운 ‘글로벌 육성 축제’

문화관광축제 대표 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면 명예 졸업장을 하고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된다. 올해 글로벌 육성 축제 등급을 받은 축제는 총 5개로, 그중 가을 축제는 3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황금물결이 넘실~

김제지평선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중심지 벽골제에서 열리는 축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비경을 볼 수 있다. 5,000년을 이어온 농경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벼 베기 체험, 쌀강정으로 한반도기 만들기, 연날리기, 아궁이 쌀밥 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기간 9월 27일~10월 6일 주소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문의 063-540-3031



얼쑤~ 신명 나는 춤판이 펼쳐지는 안동탈춤축제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다. 올해는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탈과 탈춤에 투영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할 예정이다. 다양한 여성 탈을 테마로 한 주제 공연과 개막 이벤트를 진행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또 '탈 나이트', '안동 나이트'로 불리는 탈놀이 대동 난장에 트로트 EDM, 디제잉, 드레스 코드 설정 등을 도입해 한층 트렌디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간 9월 27일~10월 6일 주소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원, 시내 일원

문의 054-841-6397

낭만적인 가을밤의 추억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 남강에 등을 띄우는 유등 행사는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에 기원을 둔다. 남강을 아름답게 수놓는 유등과 다양한 조형물, 수상 불꽃놀이 등으로 가을밤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매년 인파가 몰린다. '물과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대형 테마등으로 고싸움등, 진주 소싸움등, 비봉산 봉황 자태를 담은 봉황등을 선보인다. 또 한 등 거리 퍼레이드 강하, 폐막 불꽃놀이 개최 등 축제 프로그램에 내실을 다져 더욱 많은 관람객에게 기쁨을 줄 예정이다.

기간 10월 1~13일 주소 경남 진주시 남강 일원 문의 055-761-9111



우리가 바로 올해의 '대표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중 대표 축제로 선정한 것은 3개.

이번 가을에 열리는 무주반딧불축제와 산청한방약초축제, 그리고 지난 4월에 열린 문경차사발축제다.



책에서만 보던 천연기념물 반딧불이를 만나는 무주반딧불축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대지가 있는 산골 생태 도시 무주에서 열리는 환경 축제.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를 직접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자연과 밤하늘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올해는 <조선왕조실록>을 봉안하는 모습을 재현해 역사적 흥미를 더했다. 낮에도 살아 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디나리관, 동물 체험과 생태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생태체험존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간 8월 31일~9월 8일 주소 전북 무주군 일원, 지남공원

문의 063-324-2440

몸에는 건강을, 마음에는 힐링을~ 산청한방약초축제

전통 한방과 웰니스 관광을 접목해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힐링 축제.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올해 '힐링 산청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동의보감촌 내 전시관에서 각종 한방 약초 관련 전시를 볼 수 있으며, 내 몸의 보약 체험, 산청 약선음식 체험, 족욕 체험 등 각종 한방 약초 관련 체험도 가능하다. 1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청헤민서 무료 한방 진료는 관람객에게 특히 인기 있는 체험이다.

기간 9월 27일~10월 9일 주소 경남 산청군 산청IC 입구 축제광장, 동의보감촌 문의 055-970-6601~5



1만 8,000개의 행운을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리는 산청 동의보감촌은 사랑의열매와 인연이 깊다. 한방 기체험장에는 복을 담은 그릇 '복석정'이 있는데,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할 당시 한 관광객이 소원을 빌며 이곳에 동전을 쌓아 올렸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하면서 복석정 바위 위에는 행운을 비는 동전이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모인 동전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있다. 2013년 150만 원, 2014년 151만 6,070원, 2017년 132만 6,260원에 이어 올해 2월에 약 175만 원을 전달했다.



PART 3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최우수 축제'

글로벌 육성 축제, 대표 축제 그다음에 최우수 축제다. 총 7개가 선정되었으며 그중 3개가 가을에 열린다. 최우수 축제 다음으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가 뒤를 잇는다.



우리가 사랑한 그 시절 소환 추억의 충장축제

매년 가을 광주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추억 축제가 열린다.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젊음을 상징하는 청바지, 레트로 댄스 경연 대회, 대학가요제 리턴즈, 추억의 고고장 등 다양한 이벤트가 7080세대에게는 그 시절 향수를, 10~20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5월 한 달 동안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청바지와 한복 기부 이벤트를 실시해 750여 벌을 모았으며, 이를 공연 소품, 의상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간 10월 2~6일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일원 **문의** 062-608-2421~4

어깨가 들쭉이는 흥겨움 가득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조선 시대 남사당의 발상지인 안성에서 바우덕이의 예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시작한 축제다. 2006년부터 유네스코 공식 자문협력기구의 NGO 단체인 CIOFF®의 공식 축제로 지정되어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바우덕이 세계로 나아가는 줄을 타다'라는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성바우덕이 남사당 공연과 함께 해외 민속 예술단 초청 공연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기간** 10월 2~6일 **주소**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안성 시내 일원 **문의** 031-678-2512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유명한 쌀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의 상징인 쌀과 농경문화의 백미인 가을걷이를 전국적인 관광 축제로 승화했다. 소원지와 함께 달집을 태우는 대동놀이와 마당극 형태로 축제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또 임금님 진상 행렬을 재현하는 등 프로그램마다 축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다. 한 번에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짓는 대형 가마솥, 600m 무지개가래떡 만들기 등 볼거리는 물론 가래떡, 가마솥밥 등 쌀로 만든 먹을거리도 많아 풍성함을 더한다.

기간 10월 16~20일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 **문의** 031-645-3091~5



중앙회



(좌로부터)(주)스타벅스코리아 송데이비드호섭 대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광복회 김복열 이사

(주)스타벅스코리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1억 원 지원

(주)스타벅스코리아(대표 송데이비드호섭)는 8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사랑의열매와 (주)스타벅스코리아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장학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주)스타벅스코리아 송데이비드호섭 대표와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광복회(회장 김원웅) 김복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 1,250여 곳에 마련된 '사랑의열매 모금함에 모인 고객 기부금 3,500만 원에 (주)스타벅스코리아가 6,500만 원을 더해 마련됐다. 송데이비드호섭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젊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내일

을 위해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스타벅스코리아는 2015년부터 매년 8월에 사랑의열매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주)스타벅스코리아와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주)스타벅스코리아가 2012년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6,200만 원으로 장학금을 2배로 늘렸고, 2014년에는 장애인 대학생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스타벅스코리아의 전체 누적 기부금은 5억 1,200만 원이고, 지원 받은 대학생은 245명에 달한다. 한편, (주)스타벅스코리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안창호 선생의 친필 휘호 '약육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慾改造社會 先自改造我窮: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해야 한다)'를 구입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했다.



'하나 해피(HANA HAPPY) 리더' 발대식에 함께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총장

하나금융그룹, 학업·예체능 분야 아동·청소년 지원

8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과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가 아동 인재 양성 사업인 '하나 해피(HANA HAPPY) 리더' 발대식을 진행했다. 하나 해피 리더는 학업·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성장시킬 환경과 기회가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번에 선발한 우수 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이들 중 학업 우수 학생 13명에게는 직업 체험 활동 지원, 예체능 우수 학생 22명에게는 작품 발표회를 통한 멘토링 지원 등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이승열 재무총괄 부사장은 "오늘의 인연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 해피 리더로 선발된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미래의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아동 인재 양성 사업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탈북 청소년, 장애 체육 선수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고 있다.



사업가 권오춘, 성금 1억 원 완납으로 아너 회원 가입

권오춘(83) 씨가 지난 8월 7일 오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2년간 저축해서 마련한 1억 원을 지난 달에 완납하며 아너 회원이 되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부터 시작 해 온갖 일을 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젊은 예술가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목격한 후 오랜 기간 예술가 후원과 장학 사업을 펼쳐왔다. '초허당(草墟堂)'이라는 호를 쓰며 스스로 '초허당 후원 기금' 일꾼이라 소개하는 권오춘 아너는 "나눔은 숨 쉬는 것과 같아서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다.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춘 아너는 모교인 동국대에 장학금 28억 원과 82억 원 상당의 미술품 300여 점을 기탁했고, 예술의전당에 창작 지원금 4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

네네치킨, 청년 장학금 전달식

8월 13일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주)헤인식품, 대표이사 현철호 이 '사랑나눔 청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9,4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네네치킨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 가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사회 공헌 사업이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모든 청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바로크레디트대부, 학업 지원금 3,000만 원 기탁

바로크레디트대부(이하 바로바로론)는 8월 7일 '2019년 하반기 바로바로론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나눔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높고 재능을 지닌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년에 걸쳐 매년 두 번씩 지원해온 나눔 사업이다. 이번에 전달받은 장학금은 대학생 30명에게 전달했다. 바로바로론 관계자는 “지금은 힘든 상황이어도 학업에 정진해 각자의 꿈과 재능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옥포MTA 태권도 김혜준 관장, 나눔리더 94호 가입

거제 옥포MTA 태권도 김혜준 관장이 경남 나눔리더 94호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기부에 관심이 많던 김혜준 관장은 수련생들과 함께 저금통 나눔 행사 등을 하며 나눔을 실천해왔다. 최근 사랑의열매에서 진행 중인 '나눔리더' 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를 결심했다는 김혜준 관장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많이 느꼈다.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0년 배분사업 설명회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는 2020년 배분 사업과 복권기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배분 사업 설명회는 다각적인 배분 사업 정보와 이동 편의를 위해 동부권은 창원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서부권은 진주 경상대학교 남명홀에서, 복권기금 사업은 경남 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배분 사업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2020년 배분 기준 및 프러포즈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2018년 신청 사업 우수 기관 3개소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충북

(주)에라토, 저소득 가구에 도자기 접시, 머그컵 등 4,100만 원 상당 물품 기탁

(주)에라토(대표이사 명수호)는 충북 사랑의열매에 4,1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접시와 머그컵을 전달했다. 기탁받은 접시와 머그컵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및 북한 이탈 주민 등에 지원한다. 명수호 대표이사는 “폭염에 지친 우리 이웃들이 사랑을 담아 빛은 접시에 가족과 음식을 나누며 고단함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청주시지사, 성금 400만 원 전달

8월 7일 오후 청주시청에서 한국감정원 청주시지사(지사장 강성덕)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4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은 더운 여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4개 구의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한 여름 이불 58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강성덕 지사장은 “연이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이천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 착한일터 가입

이천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에서 심재춘 대대장과 장병들이 모여 착한일터 가입식을 했다. 이번 가입은 청룡대대의 나눔릴레이 희망저금통 성금 기부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8월 4월 군인 간부 가족의 기부를 시작으로 네 번의 나눔릴레이가 이어졌고 부대 내 60여 명의 간부가 참여해 착한일터 가입으로 이어졌다. 심재춘 대대장은 “나눔에 많은 동료와 함께해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나눔문화의 탐을 쌓아가는 멋진 부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한가위 지원사업 시작

8월 19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고양시청에서 한가위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김경희 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 북부 10개 지역에 생계비 3억 8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기부자 및 지자체 연계 나눔 행사에 3,6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양시에는 생계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아너 회원,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봉사활동 펼쳐

지난 7월 17일 대전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이승호) 회원들이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대전아너 클럽의 이승호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아너 회원이 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몸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삼계탕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승호 회장은 “지역 어르신에게 삼계탕과 과일을 대접해 기쁘고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 대전지구(총재 김진규)는 지난 8월 5일, 대전 사랑의열매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의 사회 공헌 기금을 대전 사랑의열매를 통해 모금 및 배분을 하고 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단위원별 회원이 동참하고자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김진규 총재는 “지역사회에 라이온 회원의 봉사 정신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너 회원과 함께한 대구 포크 페스티벌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곳곳에서 펼쳐진 '대구 포크 페스티벌' (이사장 신홍식)에 호남(광주, 전북, 전남)과 경북의 아너 회원 20여 명이 초청받아 대구 아너 회원 2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문화 예술 도시 대구의 한류화, 글로벌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은 음악을 통해 세대 간, 가족 간, 이념 간 갈등을 없애고 따스한 감성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대구신화수산(주), 착한가게 가입식

지난 8월 13일 대구신화수산(주)(대표 고종근)의 착한가게 가입식이 있었다. 대구신화수산(주)은 지난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구신화수산(주)은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수산물 지원이나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해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 잔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세종

KCC 세종사업장, 1,000만 원 도서 지원금 전달

지난 7월 29일 KCC 세종사업장은 소정면 소정작은도서관에서 사회 공헌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소정작은도서관에 청소년 권장 도서 1,000권과 5단 서가 7개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KCC 세종사업장은 행복나눔 빨래방, 실버카 및 선풍기 지원 사업,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CC 이병원 공장장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도서와 학습 기회를 통해 꿈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민준 어린이, 돌잔치 맞아 100만 원 기탁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 강은경 주무관은 둘째 강민준의 돌을 맞아 아이 이름으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강전민·강은경 사회복지인 부부는 2017년에도 첫째 아이 강서준의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엄마 강은경 씨는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낸 성금을 엄마가 돕고 싶단 대상자에게 지원해 더욱 감동이 밀려온다”라고 전했다.

광주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 개최

지난 7월 18일 광주 사랑의열매는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광주 지역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2020년 배분 기준 안내, 2020년 신청 사업 공모 안내, 2020년 복권기금 사업 안내와 2019년 기획 사업 공모 기준 및 변경 사항, 2019년 기획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 2019년 기획 사회복지시설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주)휴덴스, 500만 원 상당 문화공연 티켓 기부

(주)휴덴스(대표이사 노학)는 7월 23일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0만 원 상당의 ‘썸머트 페스티벌’ 공연 관람 티켓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휴덴스 노학 대표이사, 김성훈 부사장, 한재익 상무,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김영옥 관장, 광주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노학 대표이사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우신 어르신께 트로트 공연이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울산광역시지부, 한돈 3,000kg 전달

7월 30일 대한한돈협회 울산광역시지부(지부장 유재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돈 3,000kg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한돈은 울산 지역 5개 구·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한 끼로 전달한다. 유재환 지부장은 “돈가 하락 등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운 여름을 힘들게 보내는 소외 계층을 위해 한돈 농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소외 계층이 여름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사랑의열매, 3개 기관과 2019년 연합 모금 사업 협약

울산 사랑의열매는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연합 모금 사업 협약을 맺었다. 연합 모금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자체적인 모금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선정된 3개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모금 활동을 하고 모금된 규모에 따라 매칭금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기관은 밝은미래복지재단, 사단법인 마이코즈, 사회복지법인 수연복지재단 편백마을이다.

구좌농협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200만 원 기탁

지난 8월 2일 구좌농협 본점에서 구좌농협 하나로마트(조합장 윤민)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익기금 1,2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구좌농협이 하나로마트 수익금 중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윤민 조합장은 “많은 분의 사랑으로 모은 공익기금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 개원 36주년 기념 쌀 기부

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원장 고태만)은 지난 8월 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쌀 2,230kg(20kg 100포, 10kg 7포)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기탁받은 쌀은 헤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기념 화환이나 화분 대신 쌀을 받아 전달한 것이다. 전달받은 쌀은 도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다. 고태만 원장은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마음과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경북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1억 원 상당 돼지고기 나눔

지난 8월 7일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는 무더위에 지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돼지고기 21톤을 기부했다.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2014년부터 꾸준히 돼지고기 나눔을 실천해왔다. 기탁받은 돼지고기는 도내 10개 시군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정과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다. 최재철 회장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소외된 이웃에게 한돈을 통해 힘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블루원, 1억 원 상당 워터파크 이용권 기탁

8월 20일 블루원리조트에서 (주)블루원(대표이사 윤재연)이 경북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상당 블루원 워터파크 이용권 1,700매를 전달했다. 이 이용권은 경주시사회복지협회를 통해 경주 지역 복지시설 44개소 아동·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 (주)블루원 전병구 리조트 사업 본부장은 “올해도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물놀이 기회를 선물해줄 수 있어 기쁘다. 아이들 웃음 덕분에 나눔이 8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 1억 원 상당 돼지고기 20톤 기부

지난 8월 9일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회장 이웅렬)가 전북 도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1억 원 상당의 돼지고기 20톤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 이웅렬 회장, 전북 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이 참석했다. 기부받은 돼지고기는 도내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웅렬 회장은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한돈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행복드림버스 성금 전달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가 전북 지역 소외 계층의 나눔을 지원하는 행복드림버스 여행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전북 지역 지역아동센터 20곳 아이들의 나들이 비용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팀당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행복드림버스는 2014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총 2억 3,000만 원의 기금으로 208대의 행복드림버스를 지원해왔다.

인천

한국지엠한마음재단,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 성금 전달

지난 8월 8일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사장 카허 카젬, 이하 한국지엠재단)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지엠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도서 기증,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해왔다. 카허 카젬 이사장은 “한국지엠재단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천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캠페인 7,000여만 원 성금 모어

인천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14일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캠페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폭염을 대비해 6~7월에 인천 지역아동센터에 냉방용품 지원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7,007만 1,700원이 모금됐다. 인천 사랑의열매 정명화 회장은 “아이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조선(주) 이문환 대표이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지난 7월 22일 부산 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영도조선(주) 이문환 대표이사의 부산 174호 아너 회원 가입식이 있었다. 이문환 대표이사는 경기 불황에도 어려울수록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너 회원에 가입했다고 한다. 영도조선(주)은 어선, 상선, 유조선 등 선체 수리 및 외판 수리 등 선박 수리 전문 기업이다. 이문환 대표이사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주변의 도움 때문이다. 받은 은혜를 주변에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

부산 사랑의열매는 7월 22일, 2019년 기획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사업' 배분금 2억여 원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위해 추진한 것. 지원금은 각 사회복지 기관의 에어컨 구매 및 설치비용에 사용한다. 부산 사랑의열매 장보임 사무처장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 착한일터 협약식 맺어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 한전빛가람금융센터(센터장 임숙자) 직원들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문흥식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전남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처장, 임숙자 한전빛가람금융센터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가입으로 전남의 착한일터는 59곳으로 늘어났다. 문흥식 광주전남영업본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지역사회가 밝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곡성군 배분 지원금 전달식

지난 8월 7일 전남 사랑의열매는 곡성군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허정 회장, 유근기 곡성군수, 노동일 아너 소사이 어티 회원 대표, 전남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할 2억 7,378만 4,100원은 곡성군 관내 생계비, 의료비, 기획사업(정철 지원), 야간 요보호 아동 지원, 주택 개·보수 등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 2,000만 원 성금 기탁

지난 7월 31일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는 성금 2,000만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최근 마늘, 양파 등의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의 농작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 구매한 농작물은 명주원을 시작으로 충남 도내 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과 함께 전달한다. 권혁문 사장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생하는 지역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전하고자 기부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충남 사랑의열매,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는 충청남도문예회관에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0년 배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사회복지 기관·단체 관계자 390명이 참석했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년 배분 기준 및 사업에 대한 안내, 배분 사업 우수 사례 발표, 배분 신청서 작성에 관한 특강 등으로 사회복지 기관·단체에 배분 사업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원주시 복지상시 지원 체계 구축 협약식 개최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원주시 복지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축된 네트워크로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필 계획이다.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박병선 위원장은 “민관 협력으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강릉 착한약국, 협약식과 성금 전달식 개최

지난 23일 강릉시청 시민 사랑방에서 강릉 착한약국 협약식과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착한약국은 기존 착한가게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의원과 더불어 약국도 참여하는 연합 모금 형태의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약국 13개가 단체로 가입했다. 강릉시 약사회 김동민 회장은 “착한약국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어 기쁘다. 기부를 통해 강릉시 저소득층 주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충남 92호



강승록 중국 LPLiG 프로게이머

“철부지 프로게이머도 이제 나눔을 꿈꿉니다.”

대전 73호



김기남 백마강참숯민물장어 대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생각하고 결심했을 때 바로 실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실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중앙 2129호



권오훈 초허당 후원 기금 일꾼

서울 267호

故 최우석

서울 268호

최진혁

서울 269호

최경원

충남 106호

익명

경기 211호

익명

경기 212호

최천식

경기 213호

최순향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 의견



☞ 늦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를 갈까 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차 〈사랑의열매〉에서 소개한 강원도 여행지를 보고 '여기다' 싶었어요. 올봄 강원도 산불 소식에 가슴 졸이며 뉴스를 봤는데, 우리 가족의 여행이 기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강원도로 결정했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인 만큼 먹고 즐기는 휴기도 좋지만, 산불 피해 흔적도 둘러보고 자연보호의 중요성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늘 좋은 이야기 전해주어 감사합니다.
-충북 음성군 이승애

☞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로 갈수록 지구촌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폭염과 열대야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여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는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사랑의열매에서 홀몸 어르신, 거리 노숙자, 쪽방촌 주민 등 취약 계층에 혹서기 대비 냉방비와 이동식 에어컨을 대여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시각장애인 친구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산과 바다로 떠날 수 있는 기회와 체험 학습·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를 하기 전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등 사랑의열매가 이웃의 행복한 여름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이귀숙

☞ 대학생 서포터즈 기사를 보면서 특특 튀는 아이디어와 함께 사랑의열매가 원하는 꿈과 창의적인 개발한 아이디어 정말 '톡톡'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솔직함과 그들만의 끼가 매우 기대됩니다. 안정된 직장과 삶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과 같은 사랑의열매 서포터즈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비록 실수하거나 실패할 지라도 오목이처럼 웃음 주는 서포터즈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북 부안군 송준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머그컵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소다수나눔 가이드

소다수 나눔 캠페인은 '소중한 다수의 기부'라는 의미로 경제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를 맑고 청량하게 만들어 가자는 전 국민 기부 캠페인입니다.

"부장님 커피 안드세요?" (이틀 커피)



착한일터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

"사장님! 이 멋진 현판은 뭐죠?"



착한가게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월 3만원 이상 정기 기부

"얼마야
포도 만원!"



착한가정

가족구성원이 함께
2만원 이상 정기 기부

"회원님 정기금 끊어주
래 안고세요. 공문은 꾸준히
하세요~"



착한기부(CMS)

개인이 약정한 기부금이
매월 자동으로 이체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

